

중앙교회 가정예배서

[장애인주일]

인도자 : 가족 대표

사도신경 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170장 다같이

1. 내 주님은 살아계서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2. 나의 구원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3.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4. 굳센 믿음 나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기 도 가족 중

성경봉독 누가복음 7장 11-17절 인도자

설 교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자

기도(합심기도) 설교자/다같이

1. 온전한 믿음,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고 부흥하게 하옵소서.
2.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3.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기도문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죽음에서 생명으로

누가복음 7:11-17

아프리카 가나하리 사막에 사는 스프링 밧크라는 사슴은 작은 무리가 큰 무리를 이룬다. 그들은 때로 무조건 속력을 내는데 함께 무리를 이루어 돌진하다 낭떠러지를 만나면 몰살한다. 죽음의 행진이 된다. 우리는 늘 “나는 왜 이렇게 뛰고 있나?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라고 잠시 멈춰서서 물어야 한다. ▶본문에는 두 개의 행렬이 보인다. 첫 번째는 나인성으로 들어오는,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허다한 무리의 행진이다. 두 번째는 나인성에서 밖으로 나오는 행렬로, 거기에는 과부와 시인과 관과 상여와 장례 행렬이 있다. 죽은 자는 과부의 독자 청년으로, 참으로 안타까운 죽음이다. 나는 어릴 적에 상여를 많이 보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 주인공은 이웃집 할아버지, 나의 할아버지, 큰아버지... 하면서 점점 내 주변 가까이 다가온다. ▶본 사건은 참으로 애처롭다. 죽은 이는 청년인 데다 과부의 독자였기 때문이다. 청년의 죽음은 의로운 죽음이거나 젊은 나이였지만 그의 삶이 마을 사람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쳤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청년의 죽음은 과부의 절망으로까지 연결되어 있다. 자식이 죽으면 부모 가슴에 묻는다고 했고, 어머니의 억장이 무너진다고 했는데, 과부의 외아들이 죽은 것이다. 이처럼 인생 최대의 문제는 죽음이다. 하이데거는 “인간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 가고 있다”고 했다. 산다는 것은 죽음을 향해 점점 다가가고 있는 것이다. 이 죽음의 행렬은 인류가 가는 행렬이다. 아담 안에 있는 인류는 모두 사망행 열차를 타고 있다. 바울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한 적이 있다. 하지만 반대의 행렬은 죽음을 삼킨 행렬이다. 이 행렬의 선두에는 예수님께서 계신다. 누가복음의 기록 순서상, 가버나움 백부장의 하인을 치유하시고 그 열기가 채 가시기 전에 흥분과 활기가 넘치는 발걸음으로 나인성을 향해 들어오는 것이다. 이 두 행렬이 극적으로 조우한다. 생명의 행렬과 죽음의 행렬이 마주치고 있다. 생명의 행렬과 죽음의 행렬이 마주치는 순간이 바로 계시이며 “카이로스”다. 영원이 시간과 접촉되는 순간이다. 순간이 영원으로 편입되고, 죽음이 생명으로 전환되는 기적의 순간이다. 우리 인생은 두 행렬 중 하나에서 있다. 당신은 어느 행렬에서 있는가? 인간은 살기 위한 행진을 달리기 위한 행진으로, 그리고 죄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행렬로 바꾸어 놓았지만, 예수님은 죽음의 행진을 생명과 기쁨의 행렬로 바꾸어 놓으셨다. ▶이 죽음을 삼킨 행렬을 이끄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죽음의 행렬에 수수방관하며 길을 내주는 구경꾼이 아니다. 아무런 초청과 부탁이 없었지만 여인이 불쌍해서 “울지 말라” 하시면서 초청하여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셨다. 긍휼 사역이다. 예수님은 죽음의 길을 막고 서서 생명의 길을 내시는 분이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서 그 열린 관에 손을 대자 멘 자들이 섰다.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죽음의 부정이 예수님에게 옮겨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청년에게로 옮겨갔다. 단 한 번의 만지심으로 모든 것이 변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생명의 역사를 이룬 선지자들과 달리 시체에게 직접 명령하셨다. 창조주요 생명의 주의 권세로 명령하셨다. “청년아! 일어나라.” 누가 죽음의 행렬을 생명의 행렬로 바꾸었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요11:25-26). ▶이처럼 예수님은 슬픔을 기쁨이 되게 하시는 분이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주님께 접촉하는 사람마다 새로운 생명을 얻고 죽었던 심령이 살아난다. 소망을 주시는 분이다. 도움을 주시는 분이다. 기독교는 생명의 운동이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생명의 대열에 합류하는 것이다.